

고유가에 쏠린 어둡서니 공포의 실상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우리나라 사전에 '어둡서니'란 말이 있다.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헛것을 어둡서니라 한다. 그런데 공포심으로 바라보면 헛것이 점점 눈덩이 처럼 커져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지금 원유가 상승이 필자에겐 우리 경제에 어둡서니처럼 보인다. 어둡서니 경제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하나는 원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언제 끝날 가에 대한 예측이다. 다른 하나는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이다.

지난 2월 26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전날 배럴당 65.21달러이던 두바이산 유가는 21일째를 맞는 3월 20일 134.07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기대감과 양측의 공격과 대응 수위에 따라 유가는 춤을 추듯 오르고 있다.

전쟁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전쟁당사자인 미국을 보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쟁비용이 늘어

가고, 사상자의 수치도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종료해야만 한다. 이런 출구전략으로 거론되는 근거의 하나로서 이란의 원유 수출금지이자 저장소인 하르그섬을 미국이 조만간 점령할 것이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르그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90% 정도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이란의 아킬레스건 확보로 종전 협상에 우위를 가지려 할 것이다.

반면 이란의 공중과 해상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도 불구하고 항전 의지의 지속, 호르무즈 봉쇄위협, 아랍 내 인접 산유시설에 대한 간헐적인 미사일 공격 등은 미국과의 전쟁 장기화 우려를 높이면서 유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전쟁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난 3월 21일 주말에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상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 내 발전시설 폭파로 맞대응할 것을 밝혀, 겉으로는 전쟁이 격화 조짐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미국과 이란은 각기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종전 명분과 준비에 대한 보상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출구전략을 찾으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가 상승세가 우리 경제에서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하락, 경상수지 악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유가가 10% 상승하는 경우, 분석기관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0.1%포인트(p)에서 0.2%p 범위로 상승한다. 경제성장률은 0.1%p에서 0.2%p로 하락하게 된다. 3월 20일 두바이 유가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유가 상승률은 105.6%로서 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률은 거의 1%에서 2% 오르고, 경제성장률도 1%에서 2%로 하락한다. 또한, 산업연구원 3월 자료에 따르면, 유가 10% 상승이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 0.71%p를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기업은 진퇴양난에 빠진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지 이에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쟁 출구전략이 모색되는 현실에서 고유가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 가정은 어둡서니에 의한 두려움으로 비유될 수 있다.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전쟁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유가수준별 시나리오를 분석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냉정하게 가동해야 한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6일 (음 2월 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쥐** 48년생 거주문제로 마음 고생이 따릅니다. 60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은 없었습니다. 72년생 남과의 조화가 나쁘고 고독합니다. 84년생 불안한 운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 소** 49년생 신분에 걸맞은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61년생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될 것입니다. 73년생 한 발 물러가는 것도 좋습니다. 85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 지는 형국입니다.
- 호랑이** 50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62년생 아랫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주세요. 74년생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86년생 새로운 일은 잠시 미뤄다가 시작하세요.
- 토끼** 51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63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한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75년생 운전을 주의해야 합니다. 87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 말** 52년생 질투를 받아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64년생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76년생 주기가 불안해집니다. 88년생 이성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뱀** 53년생 주변에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65년생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77년생 갈라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세요.
- 말** 54년생 기본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66년생 이미 건너 해결된 형국으로 보입니다. 78년생 신규 사업을 진행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90년생 가족에게 더욱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 양** 55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67년생 어려운 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79년생 현재의 일이 가장 적합한 일입니다. 91년생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세요.
- 원숭이** 56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입니다. 68년생 즐겨서 따르게 되는 운입니다. 80년생 뜻밖의 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92년생 무슨 일이나 주의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닭** 57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때입니다. 69년생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81년생 현재의 상황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93년생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 개** 58년생 큰 성공에 욕심을 부리면 크게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70년생 이미 이룬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2년생 불운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94년생 여행을 떠나세요.
- 돼지** 59년생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71년생 명실상부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83년생 주장을 내세워 분위기가 오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95년생 일이 되지 않고, 자꾸 밀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리더십, 남은 과제는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하게 밀어붙인 증시 부양 드라이브는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줬다. 단기적인 지수 상승보다는 시장 체질 개선에 집중한 조치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됐고,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현실화했다. 정책 의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승장의 배경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시장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 정책이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이 속도를 끌어올린 '리더십 장세'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

다. 정은보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속도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거래시간 연장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행 일자가 조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의 관심과 논의는 확대됐다. 다만 연기된 일정이 실제 현장에서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제는 속도다. 강한 리더십은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를 앞당기는 힘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진다. 1979년 미국의 '볼커 쇼크'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기준 금리를 연 20%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초강력 긴축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라는 큰 대가를 남겼다. 결국 강한 정책은 결과를 만들지만, 그 비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재고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볼커식 긴축' 재현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다시 빠르게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지금의 상승장이 리더십에 의해 촉발된 만큼, 지속 가능성 역시 리더십의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국면일수록 정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된다. 속도에 가려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리더십 장세'는 성과로 남을 수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증시는 이미 응답했다. 이제는 그 리더십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godhe@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위위구조, 지혜

살다 보면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무작정 정면 대결을 펼치려고 나선다. 하지만 병법에서는 다른 방법을 권한다. '위위구조'가 그것이다. 36계 병법의 하나인 위위구조는 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구한다는 뜻이다. 전국시대에 위나라 공격을 받은 조나라가 위기에 빠졌다. 조나라는 동맹국인 제나라에 원군을 요청했고 제나라는 곧바로 군사를 파견해서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제나라 원군은 조나라로 가는 대신에 위나라 수도를 포위했다. 놀란 위나라 군사는 조나라에서 물러나 허겁지겁 자기 나라를 지키러 달려갔다. 제나라는 철수하는 위나라 군사가 지나가는 길목에 복병을 숨겨놓았다가 큰 타격을 입히고 조나라로 구해냈다. 이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우회해서 배후를 타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응용할 만하다.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매달려 어쩔 줄 모른다. 그런 때는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명리학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만을 보지 않는다. 대신 그 사건이 벌어지게 한 사주의 구조와 운의 흐름을 먼저 살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갈등이 반복된다면, 내 사주에서 어떤 기운이 과도하게 작동하는지, 지금 어떤 운이 들어와 있는지를 본다. 명리학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주라는 틀을 통해 내 기질을 알고, 운의 방향을 읽으며, 어디를 먼저 움직여야 할지 판단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 병법은 정면 승부보다 전략을 갖추어서 지혜를 조합하면 흐름의 이해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기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활동법을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2					3
	4		8	9	6	
8		5		2		1
1						3
6		1		4		9
2	5		4	7	9	6
9						5
						4

1	7		9			6
4		8	7	6		3
					5	2
			3			6
			9	4		9
8	9			7		
8	4					
7		6	4	8		5
6			2		8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활동법을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9	8	2	9	1	8	6
1	9	8	6	7	8	9	2
6	2	8	5	1	8	7	9
8	6	2	7	8	1	9	9
9	8	9	7	8	6	2	1
7	1	7	2	9	5	6	8
9	7	1	8	9	2	1	6
2	9	9	6	8	8	7	1
8	8	6	1	7	7	2	9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활동법을 소개합니다 http://www.argo9.com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8	1	2	7	9	8	9
8	9	1	8	7	9	6	7	2
2	7	9	6	8	5	7	8	1
9	7	2	7	9	1	8	6	8
1	8	7	9	6	9	2	7	2
6	9	7	2	8	8	1	9	7
7	2	9	8	1	7	8	9	6
1	8	6	9	7	8	2	7	9
9	8	7	9	6	2	7	1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